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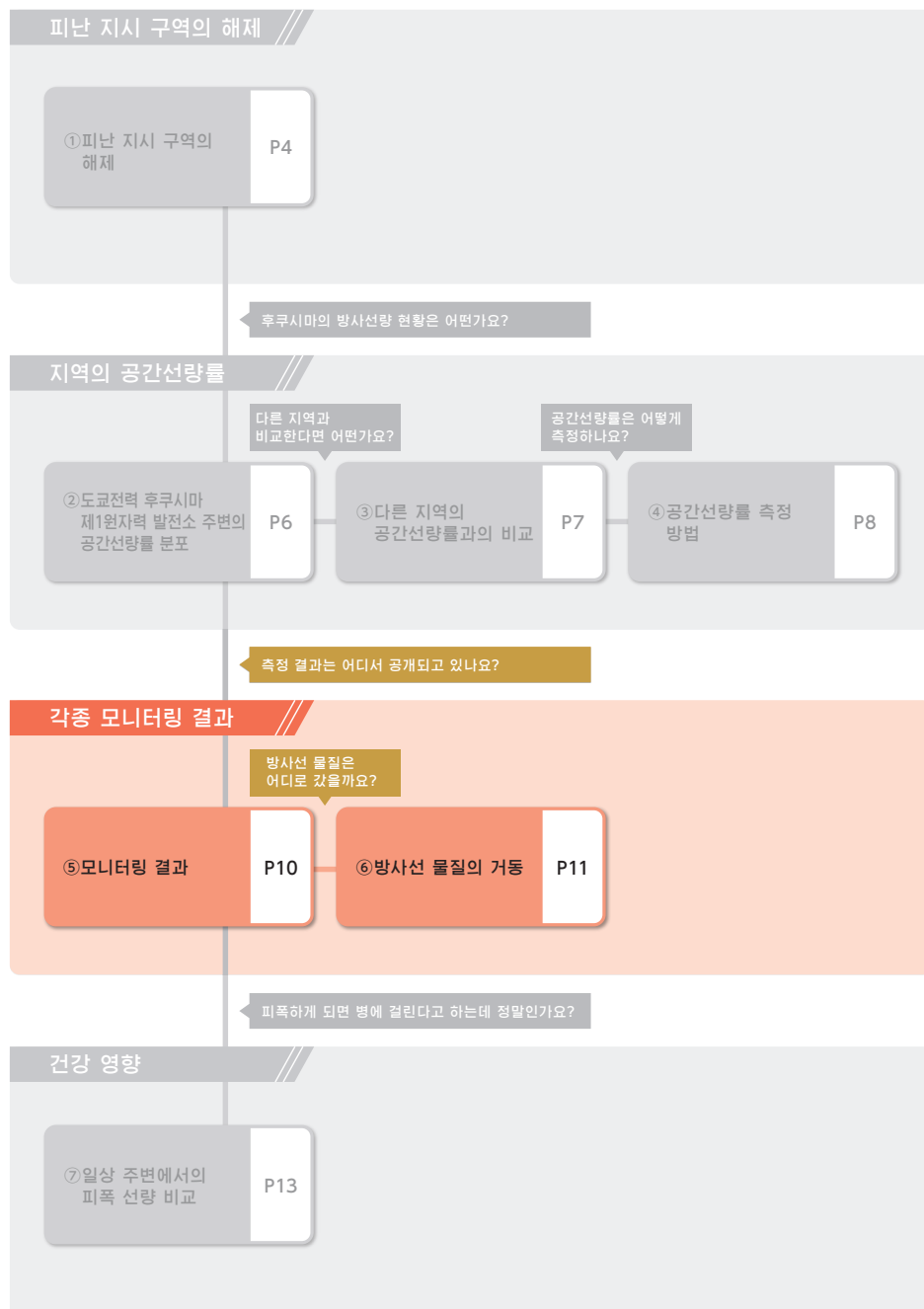


방사선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과 5개의 테마

거주

테마 각종 모니터링 결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모니터링 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의 환경 내 움직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⑤모니터링 결과

후쿠시마현 내에서는 방사선량, 방사성 물질을 파악하기 위해 공간선량률에 대한 측정 이외에도 각종 데이터에 대한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 종합 모니터링 계획 및 정보 공개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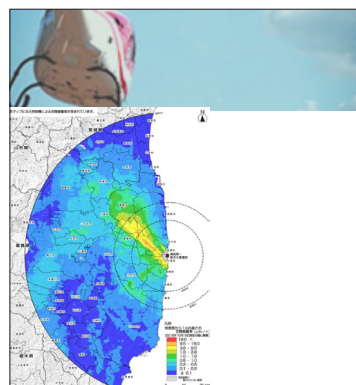
원자력 재해 대책본부에 설치된 모니터링 조정회의에서 종합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 원자력 사업자 등의 연계하에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는 관계 기관이 웹사이트에 공개하며 이 결과 정보는 수시로 갱신됩니다.

● 방사선량 측정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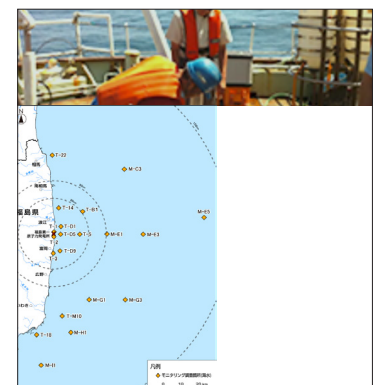
일본 전국의 방사선 모니터링 결과를 지도 형식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항공기 모니터링



후쿠시마현을 중심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공간선량률 지도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 해양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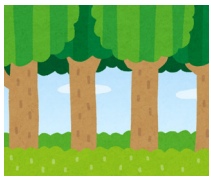
관련 부처가 바닷물, 해저 토양 및 해양생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측정 결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규제위원회 방사선 모니터링 정보 <https://radioactivity.nra.go.jp/ja/>
종합 모니터링 계획 <https://radioactivity.nra.go.jp/ja/list/511/list-1.html> 으로부터 작성

종합 모니터링 계획의 상세사항은 2022년도판 하권 23 페이지를 참조

종합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모니터링의 주요 결과를 소개합니다.

● 후쿠시마현의 삼림의 공간선량률 변화



지속적으로 관측 중인 362개 지점의 공간선량률 평균값은 사고 직후에 비해 20% 이하로 감소하는 등 대폭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 후쿠시마현 우물물에 대한 검사 결과



현재까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로는 우물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한 번도 검출된 바 없어 "ND"(검출 한계값 미만)입니다.

● 후쿠시마현 및 주변 지역*1 공공 수역의 모니터링 결과



약 600개 지점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불검출로 나타났습니다.

● 후쿠시마현 및 주변 지역*2의 수돗물 모니터링 결과



2011년 6월 이후에는 10Bq/kg를 초과해 검출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없습니다.

*1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전역 및 이와테현, 지바현의 일부

*2 후쿠시마현 및 인근 10개 도 및 현(미야기현, 야마가타현,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도쿄도, 가나가와현 및 니가타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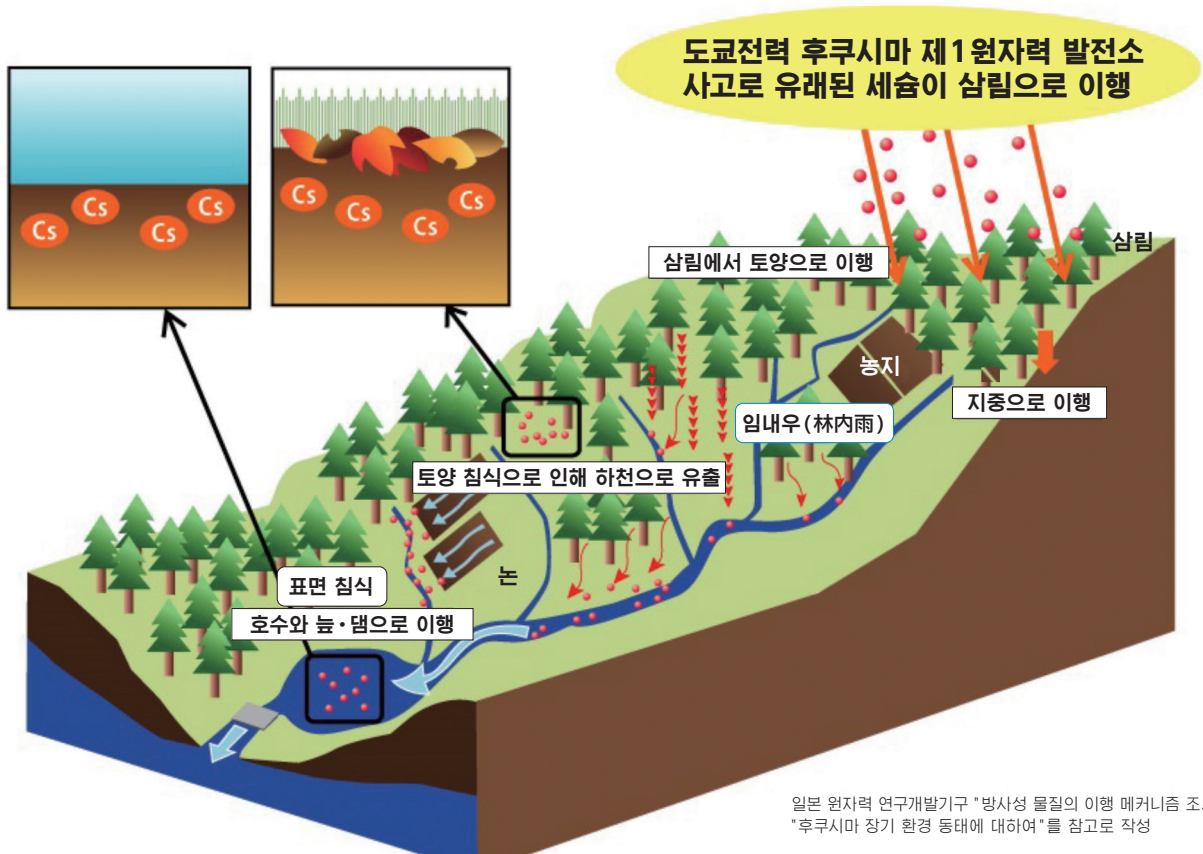
검사 결과의 상세사항은 2022년도판 하권 30, 33, 36, 41 페이지를 참조



⑥ 방사성 물질의 거동

각종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방사성 물질의 검출 사례는 감소되고 있습니다. 환경에 방출된 세슘은 어디로 갔을까요?

● 강하·침착된 세슘이 환경 중으로 이행



위의 그림은 삼림에 내려와 침착된 세슘이 상류에서 하구에 있는 댐 호수에 유입되기까지의 과정을 일러스트로 나타낸 것입니다. 2개의 확대도는 삼림 속 지표면과 댐 호수의 바닥을 구성하고 있는 퇴적물을 각각 나타낸 것이며, 모두 세슘이 토양의 표면층에 축적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의해 환경 속에 방출된 세슘의 분포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크게 변화했습니다. 사고 직후에 나무껍질이나 가지와 잎에 부착된 세슘은 낙엽과 강우 등에 의해 삼림 지표면으로 이행했으며, 현재는 90% 이상이 지표에서 5cm의 깊이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세슘의 환경 중 이행에 대한 상세사항은 2022년도판 상권 184페이지를 참조